

정기선 “가능성,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혁신동맹 필요”

〈HD현대 회장〉

HD현대, APEC 포럼

혁신기술 통한 조선업 가능성 제시
“HD현대, 첨단 역량 기반으로
美 해양 르네상스 위한 파트너”

HD현대가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미래 조선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의 시작을 알렸다.

HD현대는 27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조선의 미래를 그리다(Shaping the Future of Ship building)’를 주제로 진행됐다.

퓨처 테크 포럼에는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글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 및 군 관계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기조연설을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7일 경북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HD현대

말아 혁신 기술을 통한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당부했다. 정기선 회장은 “인공지능(AI)은 선박의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제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능성을 현

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긴밀한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D현대는 첨단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해양 르네상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혁신 기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조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 조선업의 미래 비전과 실행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파트너사들도 연사로 참여해 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존 킴 안두릴 한국 대표는 드론과 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솔루션을 소개했다. HD현대와 안두릴은 무인수상정(USV) 공동 개발을 목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택 HD현대 합정AI전문위원은 HD현대의 자율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임무자율화 기술을 결합시켜 무인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언 미국선급(ABS) 최고 기술책임자(CTO)는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조선소, 자율운항 시스템, 원격 검사·로보틱스를 미래 조선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이정민HD현대AI전략팀장은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비전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오션와이즈(OCEANWISE) ▲HD에이전트 ▲명장 에이전트 등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AI 솔루션을 소개했다.

조보만 지멘스CTO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마린 디지털 스레드’를 중심으로 설계-생산-유지보수를 연결하는 지능형 제조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전 공정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릭 슈빙 헌팅턴 잉글스 부사장은 함정 사업 역량과 기업 미션을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양사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역량 확대, 차세대 군수지원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로보틱스·AI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해상 전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및 정비체계 구축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낸드 ‘AIN 패밀리’ 공개

美 OCP 글로벌 서밋 참가
“성능·대역폭·용량 측면 최적화
AI시대 고객들 수요 충족시킬 것”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구현에 특화된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1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너제이에서 진행된 ‘2025 OCP 글로벌 서밋’ 행사에 참가해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낸드 스

토리지(저장 장치) 제품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AIN(에이아이엔) 패밀리’ 라인업을 구축해 AI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품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행사 둘째 날 진행된 이그제큐티브 세션에 김천성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AIN 패밀리를 소개했다. AIN 패밀리는 성능, 대역폭, 용량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최적화된 낸드 솔루션 제품들로,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저장 용량 극대화를 구현한 제품군이다.

AIN P는 대규모 AI 추론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AI 연산

과 스토리지 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회사는 낸드와 컨트롤러를 새로운 구조로 설계 중이며 2026년말 샘플 출시 계획이다.

이와 달리 AIN D는 저전력, 저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고용량 솔루션으로 AI 데이터 보관에 적합하다. 기존 QLC(쿼드레벨 셀) 기반 TB(테라바이트)급 SSD보다 용량을 최대 PB(페타바이트)급으로 높이고, SSD의 속도와 HDD의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한 중간 계층 스토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N B는 낸드를 적층해



발표를 진행한 SK하이닉스 김천성 부사장(ESS D Product Development 담당). /SK하이닉스

대역폭을 확대한 솔루션이다. 이는 ‘H BFTM’로 불리는 기술을 적용한 회사의 제품명이다. HBF는 디램을 적층해 만든 HBM과 유사하게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서 만든 제품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HBM 개발, 생

산 역량을 보유한 SK하이닉스는 AI 추론 확대, 대규모 언어 모델(LLM) 대형화에 따른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AIN B 연구에 착수했다. 대용량, 저비용의 낸드에 HBM 적층 구조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회사는 AIN B를 HBM과 함께 배치해 용량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OCP 글로벌 서밋과 HBF Night을 통해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한 SK하이닉스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일 수 있었다”라며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에서도 고객과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발행 빅테크가 유통 담당”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구상
“화폐, 기술문제 아닌 신뢰의 문제
‘혁신’ 위해 제도적 울타리 세워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두고 은행권 중심·점진적 도입 구상을 내놴다. ‘혁신’은 수용하되 화폐는 신뢰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발행은 공신력 있는 ‘은행권’이 맡고 유통·서비스 혁신은 ‘비은행(빅테크 등)’이 담당한다. 유관부처 협의기구와 예금토론과의 공존으로 시스템 안전장치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준홍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고 못박았다.

한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가 99.7%를 차지한다. 유로 0.2%, 기타 0.1%에 불과해 통화대체·시노리지 유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10조7000

억원), 시가총액(104조1000억원)이 빠르게 늘면서 규제·상장 여하에 따라 거래자금의 일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한 통화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페킹’과 ‘코인런’을 최우선 위험으로 꼽는다.

박준홍 팀장은 “준비자산이 안전하더라도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다”며 지난 2023년 실리온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가 0.88달러까지 급락하고 78억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린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100%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여 기존뱅크런보다 규모는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으로 예금자보호·최종대부자 기능이 적용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 공백과 자본·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 금산분리 상충과 은행 자금중개 약화도 언급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치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국제 매입)시 미국 3개월물(국채) 수익률 2.5~5bp(1bp=0.01%포인트) 하락, 상환(국제 매각)시 6~8bp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행·상환만으로도 단기금리가 움직여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측면에서는 ‘소매예금 이탈→대출여력 악화→조달·대출금리 상승’ 경로가 취약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

한은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라며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은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전략동반자 관계 중심 역내 협력강화 제안

李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7일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초국가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오는 2029년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만큼 아세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

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조력자’와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에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디지털 기

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